

질외사정이 피임법이라구요?

배정원 미디어칸 성문화센터 소장

주위 사람 중 피임으로 질외사정을 했으나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두명쯤은 만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임의 수단으로 질외사정을 하고 있다. 정액을 여성의 몸 밖에서 해결했는데 왜 아기가 태어난 걸까?

요즘은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는 때라서 'G-SPOT' 여성의 질에 있는 성근과 같은 꽤 전문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렇게 많은 성지식과 정보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말해주는 곳은 드물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 아니 '성의 바다'인 인터넷 사용으로 성에 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치게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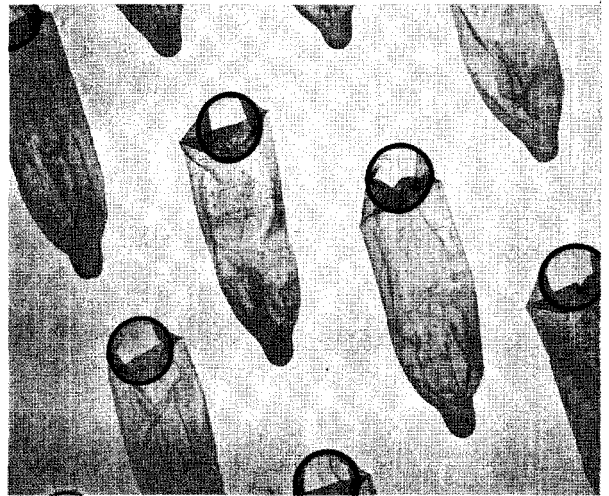
사정 전 분비물에도 정자 있어

남성들에게 성이야기를 하다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중 하나가 바로 '질외사정이 피임법'이라는 믿음이다. 질외사정이란 말 그대로 여성의 질 이외의 부분에 사정하는 것이다. 주로 사정하기 직전 남성이 여성의 몸 밖으로 성기를 빼내어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임신은 정액 속의 정자가 여성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난자를 만날 때 가능한 것인데, 정액을 여성의 몸 안에 쏟지 않았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인간의 생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조물주의 배려 때문에 생겨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으로 흥분하면 분비물이 나온다. 남성에게는 사정 전에 분비되는 것이 바로 '쿠퍼씨액'이라는 말간 액체다. 이것은 독일의 쿠퍼박사에 의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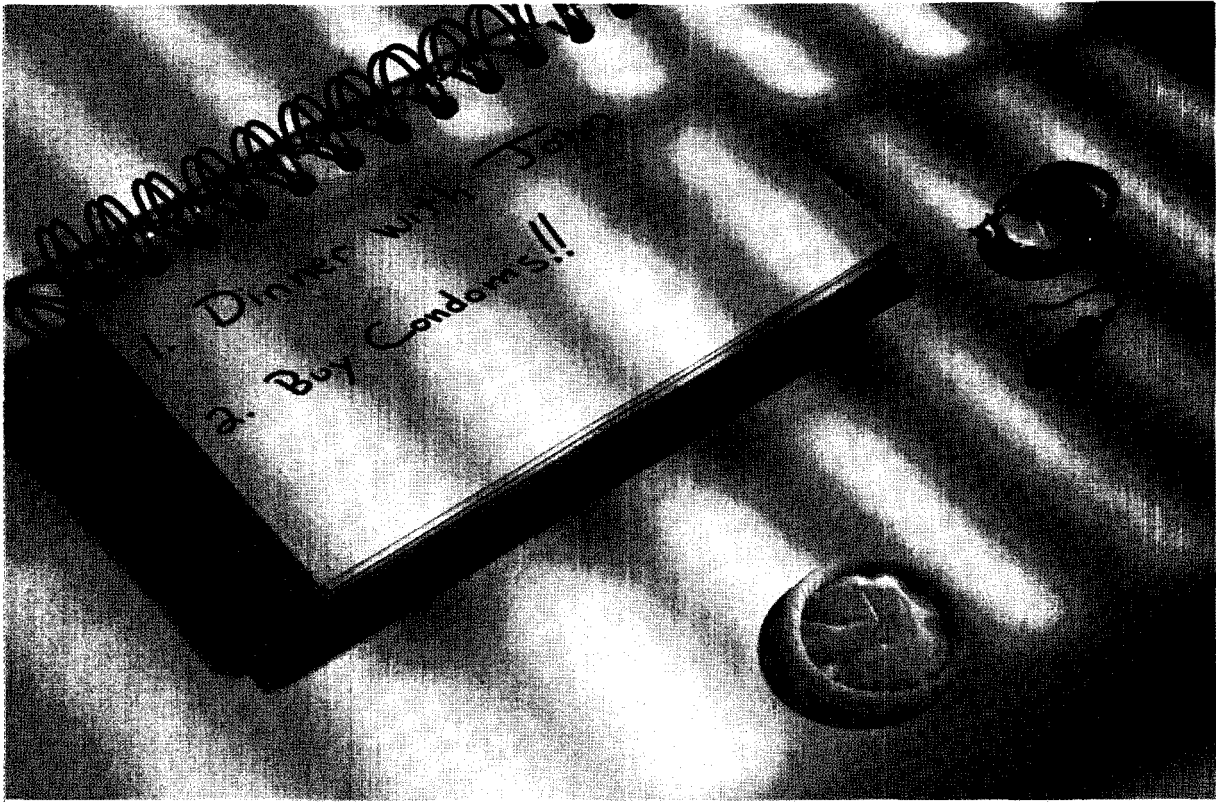


된 것으로, 완두콩만한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한두 방울 정도의 양이다.

이 쿠퍼씨액은 사실, 쿠퍼샘에 들어 있을 때는 정자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쿠퍼씨액의 용도는 성기이면서 비뇨기관이기도 한 남성 성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물주가 섬세하게 배려한 것으로 정액과 소변의 수도관인 요도관의 소변찌꺼기들을 정액유출 전에 말끔히 씻어 내려주며 삭스 시 윤향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성적으로 흥분하고 섹스를 시작하면서 정액이 먼저 요도관에 흘러들기도 하여 이 쿠퍼씨액이 미리 나와 있던 정자까지 씻어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콘돔은 받기되자마자 사용해야

남성이 한번 사정할 때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수는 3억에서 15억까지라고 한다(요즘은 정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쿠퍼씨액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정자의 수는 수백만개라고 한다. 그렇다면 몇억대 일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일대일보다는 수백만대 일이 훨씬 높은 임신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 쿠퍼씨 분비물로도 임신이 된다. 이 쿠퍼씨 분비물 때문에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될 수 없다. (질외사정을 사용한 100쌍의 부부 중 23쌍은 1년 안에 임신이 된다. 나머지 부부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임신이 될 것이다. 아주 심하게 운이 좋은 쌍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피임도구로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법에 서둘러서, 혹은 사용법을 잘못 알아서 피임에 실패하는 확률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쿠퍼씨 분비물 탓이 크다.

이 쿠퍼씨 분비물 때문에 콘돔을 받기되자마자, 사용해야 한

다. 섹스할 때 느낌이 나쁘다고 사정하기 직전에 콘돔을 사용하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또 질외사정은 남성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단점이 있다.

섹스의 흥분과 만족도를 한껏 높인 후에 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서 빼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남성으로 하여금 섹스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섹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섹스는 생명과 깊이 관련된 행위이다.

그것은 나와 파트너의 생명이고 또 생길지 모르는 아기의 생명이다. 자만감과 혹은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와 멋진 섹스를 나누려면, 성병을 예방하고 확실하게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인 콘돔을 써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섹스로 임신을 걱정하며 한달을 불안 속에 지내본 사람이라면 생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이를 확신할 수도 없는 기술(?)인 질외사정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사랑이란 배려이며, 사랑하는 이에 대한 존중이다.